

농림수산식품부

닭·오리 고기 전면 포장유통 실시 등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

농림수산식품부는 닭고기 등의 포장유통, 도축검사 담당자의 업무량 개선, 축산물판매업의 세부 영업 신설, 위생교육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이 2010년 11월 26자로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품질향상이 법의 주목적임을 반영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법률 제명을 변경했다.

개정·시행되는 법령에 따르면 닭·오리 고기와 식용란(계란)에 대하여 포장유통을 의무화하는 등 위생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닭·오리 도축량이 하루 5만수 이상인 도축업 영업자에게만 적용되는 포장유통 의무가 2011년 1월부터는 닭·오리 도축업 영업자 전체와 도축된 닭·오리 고기를 보관·운반·판매하는 영업자에게까지 전면 확대 실시된다.

전면 시행에 따라 재래시장 등에서 포장되지 않는 닭을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모든 닭·오리는 포장상태로 유통·판매되어야 한다.

특히 위생관리상 통제 없이 유통·판매 되어 온 식용란(계란)에 대하여 2011년 4월부터는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포장해야만 유통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가 강화된다.

아울러 닭·오리 도축검사 담당자의 기준 업무량을 연차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등 검사를 강화하여 축산물이 보다 안전하게 생산·공급되도록 했다.

그 밖에도 새로운 위해요소의 출현과 축산식품 위생관리제도의 변경에 대응하여 도축업, 가공업

등 영업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매년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였고, 원격교육(인터넷 교육)도 가능토록 하여 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높아진 위생관리에 대한 기대수준에 부응하여 축산물의 생산·가공·유통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영업자의 위생관리와 관리기관의 안전관리 기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 P120 참조).

한·EU FTA 체결에 따른 축산업 경쟁력강화 대책

정부는 지난 11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EU FTA 체결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분야 경쟁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09년 7월부터 생산자대표, 전문가 등으로 대책 T/F를 구성(팀장 : 제2차관)하여 수차례 논의를 통해 한·EU FTA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한·EU FTA 대책은 직접적인 피해보전보다 품목별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

품목별로 축산 선진국과의 경쟁력 차이를 분석, 관세감축에 의한 가격차를 축사시설현대화, 질병근절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품질·위생 수준 제고 등을 통해 극복해 나가는 한편, 가공산업 활성화, 가공원료유 지원, 학교급식 및 수출 확대 등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하여 적정생산기반을 유지할 계획이다.

경쟁력 제고 방안에도 불구하고 수입 증가 피해가 발생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보상금을 지원한다.

양계산업 발전대책과 관련해서는 질병근절, 전문

종계장 육성, 사육시설 현대화, 대형닭(2.5kg 이상) 생산 확대 등을 통해 EU산과 대등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닭고기 및 닭고기 가공품 품질·위생 수준 향상 및 수출 확대 등을 위해 도계·가공·포장시설 현대화 지원도 확대한다.

AI 청정국 유지를 위한 총력 대응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1월 4일 식품산업정책실장(이상길) 주재로 시·도 가축방역담당 국장 및 관련협회장이 참석한 회의를 개최하여 AI 방역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AI 청정국 유지를 위하여 차단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당부했다.

금번 회의는 2010년 'AI 상시예찰'에 따른 오리 검사결과 전남 장성에서 고병원성 AI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저병원성 AI(H7/N6)가 검출되고, 일본 홋카이도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H7/N1)가 발생됨에 따라 AI 유입방지 등 차단방역 강화가 필요함에 따라 개최했다.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AI와 같은 악성가축질병에 대한 방역은 지방자치단체와 축산농가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과거 국내에서 발생한 3차례(2003, 2006, 2008)의 AI 발생 원인이 철새에 의하여 유입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철새도래지 및 서식지에 대하여 소독(주 1회 → 2회) 및 출입자에 대한 통제 강화 등을 당부했다.

또한 AI 방역 취약 지역으로 거론되는 재래시장 및 가든형 식당에 대하여도 소독 및 예찰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해외 악성가축질병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해 축산 농가는 악성가축질병 발생국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부득이하게 이러한 지역을 다녀온 농장주 및 외국인 근로자는 귀국 후 최소 5일간은 농장에 출입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시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시예찰 방역업무 이행 실태 및 가금류 사육농가의 소독 실시여부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조류인플루엔자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일본산 가금, 가금육 등 수입금지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 12월 2일부터 일본산 가금, 가금육 등에 대해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1월 30일 일본 시마네(島根)현 산란계 농장의 HPAI 의사환축 발생으로 취했던 잠정 검역중단 조치를 일본 농림수산성에서 HPAI(H5 아형)로 최종 확진 발표함에 따라 수입금지 조치로 전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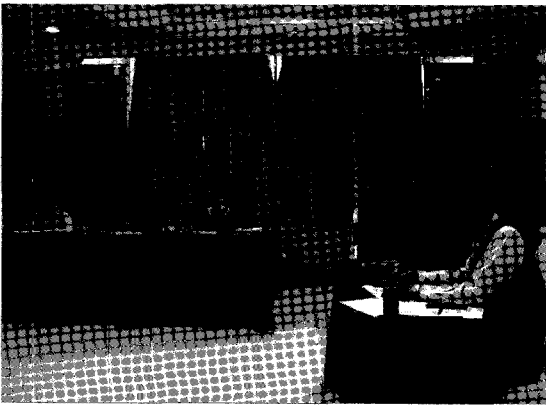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2008년 8월 이후 HPAI 발생이 없고, 2008년 8월 15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HPAI 청정국 지위회복을 통보받은 바 있으며, HPAI 발생국으로부터는 관련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금년(2010년 10월까지) 일본으로부터 가금육 334톤이 수입되었으며, 이는 전체 가금육 수입물량(85,525톤)의 0.4%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우리나라 닭·오리 사육농가에 대해서도 HPAI가 유입되지 않도록 소독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도록 당부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가금분야(육용종계농장) 협의회 개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11월 10일 분야별 협의회 가금분야(육용종계 농장주)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문제되고 있는 현안 질병의 피해저감을 위한 대응연구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육용종계 농장주와의 대화시간에 닭 뉴모바이러스 감염증, 마렉병, 닭 전염성빈혈증 등 최근 야외에서 문제되고 있는 호흡기성 및 면역 억제성 질병들에 대한 대응연구 방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종계 농장주들은 최근 일부 육용종계에서 닭 뉴모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에 따른 산란율 저하(약 10%)가 종종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국내 종계군의 발병실태나 피해 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이와 더불어 검역원에서 현장문제 질병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적절한 시기마다 질병진단 사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육용종계에서 산란피크(peak)에 도달하지 못하고 산란정체(산란율 75%수준) 현상이 나오는

계군들이 출현하여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바 산란정체의 원인이 질병 또는 사양관리 측면에서 비롯되었는지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논의했다.

닭마이코플라즈마 감염증과 관련하여 최근 마이코플라즈마 갈리셉티쿰 (Mycoplasma gallisepticum, MG) 발생은 줄어들고, 마이코플라즈마 시노비아(Mycoplasma synoviae, MS) 발생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모니터링 검사방안과 백신개발 적용 등 대응연구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본 회의를 주재한 권준헌 조류질병과장은 “이날 제안된 내용들은 양계업 현장에서 시급히 문제해결을 필요로 하는 사안들로 향후 연구사업을 통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의과학기술개발연구과제로 국내 육용종계 질병모니터링 사업을 2011년부터 수행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육용종계 농장의 주요 전염병 발생 실태를 파악하고 최근 생산성 저하의 원인이 질병에 기인하는지 등을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3회 찾아가는 축산물HACCP 기술상담 실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원장 석희진)은 금년 들어 세번째로 찾아가는 HACCP 무료 기술상담을 지난 11월 25일 양주축협 회의실에서 실시했다.

이번 기술상담은 경기도 북부지역에 소재한 축



산물HACCP 지정 및 지정 준비 중인 업소(농장)와 양주축협조합원을 대상으로 55개 업소(농장)에서 56명, 그 중 양주축협조합원 43명이 참여했으며 6명의 상담원이 1:1 형식의 맞춤형 개별상담을 실시하여 성공리에 마무리 되었다.

이번 상담에서는 축산물HACCP 추진 중인 업소(농장)의 관심이 유난히 높았으며 HACCP을 준비하는 과정 중 궁금한 사항을 중심으로 개별상담을 실시했다.

상담의 주요 내용은 축산물위생관리법(구 축산물 가공처리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련법령, 고시 개정사항 및 축산물 HACCP의 적용절차 등에 대한 이론교육을 실시 후에 질의응답 및 개별상담 순으로 진행했다.

기준원은 앞으로도 거리상의 제약으로 방문상담이 어려운 업소의 영업자 및 농장주들을 위해 실속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별로 찾아가는 기술상담을 실시함으로써 최고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과 MOU 체결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은 지난 11월 24

일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2층 다목적회의실에서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학장 이근우)과 '축산물 안전관리 분야의 기술발전과 위생관련 정보의 상호 이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서 기준원은 2007년도 국립한경대학교를 시작으로 15개 전문 관련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전국 망을 이용한 지속적인 정보와 업무 교류를 통해 전문적인 축산위생관련 기술연구는 물론, 국민 식생활 안전에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별도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양 기관 간에 축산물위생 등과 관련한 공동연구와 상호협력을 위한 것으로, 석희진 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과의 협약체결로 도세가 넓고 수의·축산 분야의 역사도 오래된 경북지역에서 축산분야의 위생안전은 물론, 축산산업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기 위한 업무수행에 든든한 조력자를 확보했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했다.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의 이근우 학장도 "양 기관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서로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의 상호 보완을 통해 국민의 식생활 안전과 직결되는 축산물HACCP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2010년 가축방역사 보수교육 실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배상호)는 지난 11월 15일부터 경기도 용인 소재 숙명여자대학교연



수원에서 가축방역사 116명을 2차로 나눠 현장방역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2010년 가축방역사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배상호 본부장은 지난 11월 22일 제2차 입교식에서 "가축질병 청정화와 안전축산물 공급은 FTA 체결에 대비한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하고, "우리 방역본부가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방역현장에서 힘겹고 고된 어려움이 있어도 국내 축산업을 발전시킨다는 역할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번 교육은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과 담당관의 '가축방역정책'과 '가축전염병예방방법령해설'에 대한 강의에 이어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주요 가축전염병의 임상증상과 농가 피드백관련 질병관리 지도요령'에 대한 전문교육이 있었으며, 초동방역 운영요령과 농가 데이터 구축에 필요한 프로그램 활용법에 대하여 교육함으로써 효율적인 현장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가금학회

제27차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 개최



한국가금학회(회장 김재홍) 제27차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가 지난 11월 12일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제1강당에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중대 동물자원생명과학과 후원으로 100여명의 회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김재홍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금년 한해는 가금학회가 학술등재지로 격상됐고 임원들의 노력으로 재정 또한 늘어나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었던 한해였다"고 평가하고 학회장을 1년 더 맡게 해 준 회원들의 뜻을 받아 향후 산학연의 연결고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가금학회 학술발표회에서는 특강으로 안형진 카길애그리퓨리나 부사장을 비롯, 우성사료 이병곤 박사, 서울대학교 최진원 박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전우진 박사로부터 닭의 지방간, 곡시돔 저감, 닭의 원시유전자 세표, 감보로병에 대해 각각 연구내용을 발표했다.

학술발표회가 끝나고 개최된 정기총회에서는

2010년 회계연도 수지예산결산과 2011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이 상정되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2011년도 수지예산은 전년도 보다 39% 늘어난 8,760만원으로 확정했다.

이날 2010년 가금학회상 포상자 시상이 있었는데 공적상은 교육분야에 고태송(건국대) 교수, 백인기(중앙대) 교수가, 저술분야에는 이희훈(현축) 대표, 행정분야에는 노수현(농림수산식품부) 과장, 봉사분야에는 김영한(양계연구소) 대표, 김삼수(농협중앙회) 팀장이 각각 수상했으며, 공로패는 박장희(전임 회장) 박사, 최양호(경상대) 교수, 임호중(삼양사) 박사가 각각 수상했고, 차세대학술상은 정사무엘(충남대) 씨가 감사패는 메리알코리아, 인터베트코리아, 제네시스, (주)데구사코리아, (주)DSM뉴트리션코리아, (주)체리부로, (주)대성미생물, 고려비엔피(주), (주)대양신약이 각각 수상의 영광을 얻었다.


김재홍 회장은 내년도 춘계 심포지움을 국제행사로 치를 예정인 만큼 예산을 충분히 잡아 빈틈없이 살림을 꾸려나갈 계획을 밝혔다.

이날 임원개선에서는 김재홍 회장이 만장일치로 재추대 되었으며, 신임 감사로는 최양호(경상대학교) 교수가 선임되고, 임원구성에 대해서는 회장에 일임키로 했다.

시아 영양사 학술대회(5th, Asian Congress of Dietetics, 태국에서 개최)에서 '창리치 아시아 영양사상(DR. Chwang's asian dietetics award)'을 수상했다.

'창리치 아시아 영양사상(DR. Chwang's asian dietetics award)'은 AFDA 초대회장인 DR. Chwang Leh-Chii의 기부금을 기금으로 아시아 영양관련 교육, 연구분야의 전문성 강화에 힘쓰고, 영양분야 및 영양사직의 발전에 공로가 큰 영양전문인 1명을 선정하여 4년마다 개최하는 아시아영양사대회(ACD)에서 수여한다.

이번에 문현경 교수는 다양한 국제 워크숍, 세미나 등에 발표자, 좌장 등으로 참석하여 학술 연구 발표, 최신 식품영양정보의 제공 등을 통한 식품영양학의 발전, 영양전문인으로서 영양사의 전문성 확보 및 역할 확대를 통한 세계인의 영양상태 개선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AFDA 및 ICDA 등 국제 식품영양학의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국제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세계 식품영양전문인의 네트워크 구성 및 정보 교류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문현경 교수는 대한영양사협회 회장을 비롯하여 식품영양관련 단체의 부회장 등 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단국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로 재임 중이다. 

(사)대한영양사협회

문현경 전 회장, '창리치 아시아 영양사상' 수상

지난 11월 10일 문현경 교수(대한영양사협회 (전) 회장, 단국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제5차 아